

《 우수 서평 예시 》

하이에듀

주제	참고할 만한 서평
우수 서평	<p>* 해당 우수 서평 자료를 참고해 서평 작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서평<동급생></p> <p><동급생> (열린책들, 2017)은 1971년 처음 출간된 프레드 울만의 소설로, 나치 집권 바로 전 시절 유대인 소년과 독일인 소년의 우정을 다룬 책이다. 생동감 넘치고 정교한 표현들이 돋보인다. 동급생의 작가인 프레드 울만은 1901년 독일 중산층 유대계 가정에 태어났고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였다. 나치의 집권 후 그는 독일을 떠나 프랑스에서 화가 경력을 쌓는다. 동급생의 그림을 그려 넣듯 정교한 문장들과 마치 자서전과 같은 생생한 표현들이 그의 예술적 기질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p> <p>이 소설은 유대인 소년 한스의 회상으로 시작이 된다. 사춘기 소년 한스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우정을 원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별다른 특별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자신의 이상에 맞는 독일 귀족 소년 콘라딘을 만난다. 둘은 친구가 되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나누지만 두 소년의 우정은 오래 가지 못한다. 콘라딘 집안의 유대인 혐오와 히틀러와 나치의 집권은 한스를 서서히 조여오고 두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에 이별이 다가오는데...</p> <p>15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매우 부드럽고 단어 하나 하나가 문장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꾸민다. 한스가 콘라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강렬했던 인상, 우정의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찾아오는 불안감과 같은 한스의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또한 150p를 꽉 채운 내용 속에서의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슈바벤의 완만하고 푸르른 언덕들은 포도밭과 과수원들로 덮히고 성채들로 왕관이 씌워졌다. 56p]와 같은 표현들이 작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p> <p>또한 나치와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에 두 소년의 우정과 이별'이라는 주</p>

제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책 마지막 부분에 40년 후의 미국에서의 한스에게 모교의 기부 호소문이 도착한다. 한스의 독일에 대한 아픈 기억과 뻔뻔하게 기부를 요청하는 모교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 있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기부 호소문은 한스에게 독일에 대한 기억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한스는 자신을 쫓아냈음에도 기부를 요청하는 호소문에 분노하지만 바로 찢어버리지 않은 것은 청소년 시절 단 한 명의 소중한 친구인 콘라딘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의 전개와 표현이 어느 부분에서 보아도 완벽에 가까웠고 마지막 한 줄의 결말은 한동안 결말에 대해 생각하게 할 정도로 깊은 감동을 남긴다. 또한 표현이 자극적이지 않지만 몰입하여 읽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정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여 청소년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서평 <달과 6펜스>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이 쓴 책으로 대표작으로 <인간의 굴레>와 <달과 6펜스>가 있다.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의 고문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님의 이른 죽음으로 영국에 있던 숙부의 밑에서 크게 되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어학과 수학을 공부하기도 하였고 런던의 성 토머스 병원 부속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는 처녀작으로 <램버스의 라이저>를 1897년 발표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업을 포기하고 스페인으로 건너가 작가 수입을 받는다. <정위>, <크래덕 부인> 등의 소설뿐만 아니라 <프레더릭 부인>, <현세의 이익> 등 희곡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의 야전의무대에 지원하였다. 그 후 정보국에 발탁되어 첩보 활동을 시작한다. 전쟁 중 <인간의 굴레>를 편찬하였고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소설을 쓰기 위해 고갱이 일생의 상당 기간을 보낸 타히티섬을 여행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달과 6펜스>를 출판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인간의 굴레>도 재평가 받는 등 작가로서의 그의 입지가 확립되었다. 이후 <극장>, <면도날>, <서밍업> 등 다양한 걸작을 탄생시킨 후 1965년 남프랑스 니스에서 91세로 영면한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유태주의적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는 <달과 6펜스>(민음사, 송무 옮김)는 후기 인상파 화가중 하나인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쓴 작품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작품에서 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떠돌이 생

활을 한 스트릭랜드도 폴 고갱과 비슷한 삶을 산 것으로 그려진다. 작가는 단지 고갱과 비슷한 삶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혹한 예술을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책으로 엮어냈다. 서술방식 또한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작품 내에서 서술자가 스트릭랜드의 그림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해 때로 낭만적이고 신비한 환상처럼 읽힌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것이, 혼을 어지럽히는 전혀 새로운 어떤 영성이 깃들어 있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상상을 이끌어 가면서, 영원한 별들만이 빛나는 어둡고 텅 빈 우주를(생략)(p.191)'

아들과 딸을 둔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을 이룬 중년의 남자인 주인공이 자신의 예술적 길을 걸겠다고 프랑스로 떠나는 사건을 통해 작품은 전개된다. 당혹감을 안겨주는 설정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된 작품의 전개 방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작품의 후반부에서 다른 작중인물들의 말을 빌려 스트릭랜드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런데 스트릭랜드가 사는 그곳에는 소리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밤에 피는 하얀 꽃들로 사방은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략)영혼이 금방이라도 두둥실 날아가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이 조금도 무섭지 않고 사랑스러운 친구처럼 느껴졌어요(p273)' 브리노 선장의 동화적 서술은 독자들이 더욱 주인공에 흥미와 신비를 느끼게 한다. 물론 작품 전반에서의 스트릭랜드에 대한 묘사와 서술은 난해하고 탐미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생전에는 자신의 특이한 행태로 단지 비웃음만 샀지만 죽은 후에는 작품들이 진가를 빛나게 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스트릭랜드는 원래는 예술에 관심 없고 말주변이 없어 따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그의 아내 덕분에 작품의 서술자는 스트릭랜드와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 서술자는 스트릭랜드와의 첫 만남에서는 그가 덩치있고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외에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서술자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된 연유는 첫 번째와 달리 그의 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떠났지만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여겨진 스트릭랜드를 나레이터는 직접 찾아 나선다. 서술자는 그 과정에서 스트릭랜드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와 스트로브와의 관계에서 역겨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천재성과 유별남에 이끌린 서술자는 다양한 인물을 만나며 병에 걸려 죽기까지의 그의 인생의 행적을 찾는다

번역자 송무는 <달과 6펜스>라는 제목을 이상과 현실을 뜻한다고 해설한다. 달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끄집어내고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로 상상의 세계나 이상적 세계를 뜻한다. 6펜스는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통화된 은화의 값으로 세속적 가치를 뜻한다. 천박하며 타성적 문명과 인습을 뜻하는데 주인공인 스트릭랜드는 이를 벗어나 달의 욕망에 이끌려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작가 또한 이러한 세속적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주변인들의 묘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아하니 그는 로마에서 몇 해를 두고 그렸던, 그 진부하면서도 곱게만 보이는 소재들을 파리에서도 여전히 그려왔던 모양이다. 하나같이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겉만 그럴싸했다. 하지만 더크 스트로브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인간도 없었다. 이 모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p98)' '하기야 그녀도 똑똑한 여자인지라 자기가 애써 만든 사슬이 오직 그의 파괴 본능만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유리창을 보면 벽돌 조각을 집어던지고 싶어지듯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정이 어찌 이성대로만 되랴. 그녀는 파국에 이르는 길인 줄 빨리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p219)' '알렉산드리아에서 보건국 관리인가 뭔가 하는 하찮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だね. 들리는 말로는 지지리도 못나고 늙은 그리스 여자하고 살면서 병치레하는 애들을 대어섯이나 거느리고 있다더군. 그러니 말일세,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가 보아. 인격이 중요하지. 아브라함에게는 인격이 없었어.(p259)' '얼마 뒤 나는 부인의 친구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내용인즉, 찰스 스트릭랜드가 엠파이어 극장의 발레 공연에서 처음 본 어느 프랑스 댄서에게 홀딱 반해 그 여자를 따라 파리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이하게도 그 소문은 스트릭랜드 부인에 대해 적지않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체면도 상당히 세워주었다.(중략) 스트릭랜드 부인이 거짓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자신과 남편의 관계가 늘 좋았다는 식으로 암시하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음에 놀랐다(p305)'

위의 발췌는 순서대로 예술에 대한 좋은 안목에 있음에도 자신의 작품에 한해서는 고뇌의 정신이 없는 스트로브, 육체적 관능만을 추구하는 블란치, 보장된 직업과 사람들의 선망 있었음에도 자신만의 갈 길을 결정한 친구를 멸시하는 알렉 카마이클, 가정을 떠난 남편에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남편이 천재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자 그의 아내였음에 생색을 내는 스트릭랜드 부인과 같은 세속적 세계와 스트릭랜드의 삶은 작품 전반에서 대조된다. 이는 세속 세계에 대하여 날카롭고 신랄한 풍자를 한 작가의 설정이다 작품 전반의 느낌은 매우 신비로우면서 일상과의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다. 스트릭랜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랑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꿈을 포기

하지 않는다. 결국 그는 병에 걸려 죽고 만다. 예술적 본능과 운명을 믿는 독자라면 읽기에 따라 그의 예술에 대한 욕망은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룬 것이기에 그의 작품이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 누가 자신 내면의 본능과 욕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는가? 이러한 설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설정은 본질적 욕망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해주고 독자들만의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시선,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준다. 현실이 지루하고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추천한다.